

산도

| 퍼낸이, 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중보기도	5
매일기도	6
성경 자세히 읽기	8
가족소식	12
발에 감추인 보화	14
예가소식	15

■ 성령강림절 넷째 주일/2015년 6월 14일

'산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발간합니다.

“계란밥”

내 인생에는 소소한 이야기가 담긴 몇 가지 음식이 있다.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몰라서 싫어했던 평양 물냉면. 열 번 정도 먹게 되면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충고를 듣고 꼭 참고 열 번을 채우려고 먹었다가 이제는 찾아 먹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다.

딸기맛 요플레. 1983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된 요플레를 처음 먹었을 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시큼하고 물컹하고 미끌미끌한 느낌이 너무 싫어 토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다.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다.

와플 하우스 딸기 빙수. 숙대입구에는 설탕에 절인 딸기를 고봉으로 얹어주는 와플 하우스라는 가게가 있었다. 팔빙수 밖에 없던 시절인 1980년대 후반에 개업한 이 집은 고등학교와 가까워 가끔씩 가던 집이었는데, 며칠 전에 필이가 그 집 빙수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다. 고봉으로 얹어주던 그 시절은 갔지만 필이와 한번 가봐야겠다 싶다.

계란밥. 작년, 여름성경학교를 기획하며 밥을 정말 좋아하는 라온 이다혜 선생님 계란밥을 아침식사 메뉴로 추천하였다. 평소에는 콘플레이크 등 간편식을 주로 먹었는데 아이들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

다고 하여 먹게 된 계란밥의 요리법은 정말 간단하다. 따뜻한 밥 위에 계란 후라이를 얹고 간장을 뿌려서 비벼 먹으면 된다. 뭐 그렇게 맛있을까 싶었는데 무척 맛있어서 평소에 아침을 먹지 않던 나도 한 그릇 똑딱 해치웠다.



이야기가 담긴 음식에는 그 음식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 음식 자체도 맛있고 기억에 남지만,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의 좋은 느낌이 남아 훨씬 더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사람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는 맛있게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맛있는 음식은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음식이다.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음식이라면 더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해도 ‘원손은 거들썩’이라는 유명한 만화의 대사처럼 음식은 그 좋은 시간을 거들썩 주인공이 아니다. 함께 먹는 일을 통해 그 음식에는 이야기가 생기고 그 사람도, 그 음식도 더 좋아진다.

왁자지껄.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계란밥을 먹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니...; 그 사람이 보고 싶다.



■ 구약성경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차이가 나는 가르침은 용서입니다.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

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는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너를 끌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네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러고 하는 사람을 물리지 말아라.” (마:5 38-42) 이 말씀은 사람의 보편적인 정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공감을 못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보편적인 정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말합니다. 사람의 보편적인 정

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율법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저는 요즘에도 돈으로 갚지 말고 ‘눈에 눈, 이에는 이’ 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유전무죄 유전무죄’라는 말도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면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는 것이 사람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안 되니까 돈 없는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가들, 한 권력한다는 인간들, 재력가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것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못할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법전에 나온 법입니다.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복수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공정함에 대한 느낌입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이 천칭을 달아서 왼쪽, 오른쪽이 같아서 공평, 공정 혹은 폼 나는 말로 정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복수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복수에 대한 느낌의 정의감입니다. 모든 윤리적인 결론은 바로 복수라고 하는데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공평이니 정의니 이런 말로 등장 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기 전에는 아마 누구든지 내 눈을 뽑으면 내 눈을 뽑은 사람의 눈을 뽑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대행해주는 일종의 대행기관이 생깁니다. 대부분이 법이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법의 핵심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대신 충족시켜 드립니다’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 곧 복수심을 실현하면 대대손손 악순환이 발생하니 그것을 끊고 내가 대신 대행해 주겠다고 집행권을 갖고 있는 대행기관은 말합니다. 그렇게 법이 시작이 됩니다.

사적인 복수금지가 법을 만드는데 첫 번째 조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적인 정의실현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권력이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금하고 공적으로 복수한다고 합니다. 소위 죄와 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죄와 벌은 법에서 정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권력을 갖게 됩니까? 공적인 복수에 종사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을 부리는 왕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가진 권력의 가장 밑바닥에는 대리 복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느낌을 통해서 왕에게 정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력체계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안됩니다. 권력은 일단 잡기만하면 그 사람들은 권력을 기반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스템이고 세상의 윤리학이 해온 길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웠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것 위에 세상의 모든 관습과 도덕과 법들이 토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윤리학을 말한다면 정당한 복수, 공정한 복수에 관한 학



미가서	7:18 - 20
갈라디아서	6:1 - 10
요한복음서	7:53 - 8:11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권력을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복수할 수 있는 권력을 나누어 가졌는데 이제는 소수가 그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죄와 벌을 정하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소수가 복수를 독점하게 되고 결국은 권력자들이 복수를 그 집단에서 선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당연한 것입니다.

왕이 가진 권력 중에 가장 그럴싸한 권력이 사면권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이후로 개개인이 복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못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왕이 갖는 것입니다. 복수권을 왕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오면 사면을 해줍니다. 사면권은 왕이 가진 가장 큰 권력입니다. 왕은 대체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의 죄를 사면해 줍니다. 이렇게 세상은 복수를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중심으로 사회는 조직되어있습니다. 권력의 밑바닥에는 복수라고 하는 감정, 다른 말로 하면 정의감, 공분 이런 것들로 토대가 되어있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그 시스템이 공고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은 엄청나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는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네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마:5:38-42) 이 말씀은 우리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도대체 이러한 가르침으로 구축되는 국가는 어떤 권력시스템일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권력이 세워질까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실천강령이라고 한다면 ‘용서’라고 하는 것

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강령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하라는 것은 윤리적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바리새파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합니다. 용서는 최고의 권력자들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옥에 갇힌 사람에게 내가 용서한다고 간수에게 문을 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실현한다면 여러분도 같은 감방에 갈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도 공감을 못 느끼는데 용서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굉장히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 마음의 방향, 여러분의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여러분의 적성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신에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복수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사랑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데 사랑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용서하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데 용서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훨씬 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본성을 뒤집어엮기 전에는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본성을 갈아엮기 전에는 절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생긴 대로 산 기억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느낌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사랑은 되도 용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내 본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난 몸뚱이 그리고 그 몸뚱이가 느끼는 소위 즐거움 내지는 정의감

예수님이 볼 때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복수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사랑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혹은 공감능력 이런 것들은 일단 폐기처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셨나 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뚱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뚱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사랑하는 일도, 용서하는 일도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볼 때 그런 확연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의 존재가 사람의 아들딸에서 하나님의 아들딸로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각이 달라지고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례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영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고 거울을 보면 그전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당당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세상 왕들처럼 사면권을 갖게 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권력입니다. 법을 집행해서 벌을 주는 권리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해서 내 말을 잘 듣게 하지만 내가 사면 할 수 있는 권리는 나에게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에게 잘못된 놈들은 끝까지 추격해서 발본색원해서 복수를 하지만, 우리는 그 권력을 나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존감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자존감이 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것

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은 뭐냐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자존심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령받으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령강림절이 가기 전에 한번 해봅시다.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눅23:34) 여러분의 자존감이 이 정도까지 되면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밟고 살아도 이 땅의 길이 하늘의 길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가 교회가 어림도 없지만 양값을 하자고 하면 ‘그렇게 쪽팔리는 짓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많은 잘못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공자님 말씀 중에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툼도 없고 평화로우니까 은둔 거사나 산중거사가 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려면 뭐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뭐라도 하다가 보면 꼭 잘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꼭 무엇인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잘못된 일도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내 용이 물리적 기반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매주 둘째 주에 예배드리기 전에 서로 화해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말

씀이 살아남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교회로 살기 위해서는 용서가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랑은 용서를 낳고 용서는 사랑을 세웁니다. 상승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둘 다 성령을 받아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안 될 때는 마중물처럼 바깥에서 물 한 바가지 넣어서 펌프질 하듯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마중물처럼 해본다면 ‘너희가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약속이 되어 있는 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강림절 동안 여러분들이 마중물처럼 용서하려고 억지로라도 자연스럽게 없더라도 용서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같은 신적인 높은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지낸다면 아마 올해는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번 절기 동안 꼭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품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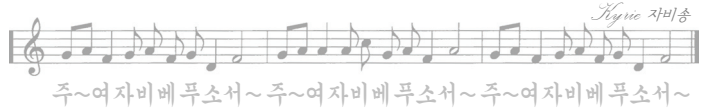
즐거운 이한재: 마르다님에게 간식을 선물하겠습니다.
 요한 조현: 마르다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가족모임 장소를 준비하는 유랑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즐거운님에게 맛있는 음료를 선물하겠습니다.
 희은 박용제: 유랑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빌립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성실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좋은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광야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광야 김규동: 가족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좋은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해 석재호: 기도로 준비하여 광야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달빛 김주영: 모퉁이돌님에게 감사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해님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습니다.
 모퉁이돌 이영교: 빌립님에게 식사대접을 하겠습니다.
 아모 박주은: 달빛님에게 향수 선물을 하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늘빛님과 문자로 사귀고 선물을 하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나무님과 카톡하고 사귀를 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샘물님과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맑은 최영란: 선물을 준비하여 샤론님과 만남을 갖겠습니다.
 샤론 김진수: 늘빛님과 맑은님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샤론님에게 토마토를 선물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가족들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에스더님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사랑님과 준비해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문자를 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초록님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성찬 준비 대장인 씨앗님을 격려하며 성찬 대접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화장실 청소와 녹두 담그기를 잘하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사랑가족을 생각하며 감사문자를 보내고 맛있는 밥을 준비하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성찬준비 간식과 다음 가족모임 때 간식으로 과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성찬준비 대장으로서 더욱 수고하고 준비를 잘해서 잘 마치겠습니다.
 화음 김진승: 한가온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나 유수옥: 푸른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신나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불꽃 김강진: 시원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가온 양세련: 화음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원 박주현: 유유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령강림절 넷째주



아침 기도

시편찬양

시편 100편
소리내어 천천히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첫 기도

주님,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내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주소서. 남의 생명을 깎아서 자기의 생명을 채우려 했던 이기적인 옛 존재는 죽고, 나의 생명을 주어 많은 생명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존재, 성령으로 가득한 존재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독서

마가복음서
5-6 / 7-8 / 9-10
11-12 / 13-14 / 15-16
소리내어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고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밤 기도

시편찬양

시편 100편

소리내어 천천히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첫 기도

주님,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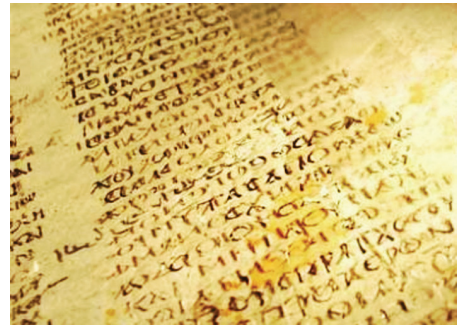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제 51 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13)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산다는 말이다. 그 나머지는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나와 홍길동 교우가 함께 주방정리를 하게 되었다고 해보자. 길동이는 컵들을 왼쪽에 쌓고 싶어하고, 나는 오른쪽에 쌓고 싶어한다. 이 문제를 놓고, 나와 길동이가 열띤 토론을 벌인다. 자, 누가 져야 하는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저주어야 맞는 것인가?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양보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다. 나와 길동이가 주방정리를 놓고 벌이는 토론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토론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확실히, 외양은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논쟁을 하다 보니, 길동이가 슬퍼한다면, 그 때는 내가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나와 길동이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다만, 교양이 부족한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건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된 것이다. 건전한 대화가 안되면, 더 전문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의 조언을 들어 해결하면 된다. 이런 일을 두고, 사랑이 있다 없음을 운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나와 길동이가 컵 문제로 다툰 일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다투게 되면, 그 때는 확실히 둘 다 사랑이 없는 것이다. 교양도 없을 뿐만 아

니라, 사랑까지도 없는 것이다. 이 때, 교회가 문제 삼는 것은 ‘누구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교회는 사랑을 자기의 근본으로 삼고, 어떤 방식이 사랑을 더 키울 수 있는 길인가를 힘써 찾으려는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 일하는 곳이다. 협의를 하고, 일을 할 때에는 교양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도중에 갈등이 생기면 최종적으로는 사랑으로 해결한다. 교양만으로는 해결이 안될 때가 있으니, 우리가 근본으로 삼고 있는 ‘사랑’이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교양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번 양보를 받기만 하는 이도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에 관해서는 교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을 할 때에, 어떤 일 처리의 방식이 맞고, 옳기 때문에 움직이지는 말라.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협의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은 일을 더 푼푼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들이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교회로 모여서 일을 맡아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교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교양에 있어서는 최고인데,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교회이다. 일을 아무리 잘 처리하고, 교양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다. 차라리 교양이 덜해도, 사랑

이 많은 사람이 일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좋다. 교회가 사랑을 배제하고, 일을 잘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 교회는 사업은 잘하는 집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교회는 될 수 없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사람에게에는 ‘권력’이라는 욕구가 끊임없이 도전해 온다. 일을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일을 잘 처리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래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욕구가 있고,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러나, 교회는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사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오히려 정반대의 욕구를 추구한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나, 허다한 교회의 목사들과 리더들이 일을 잘 처리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쪽으로 가버렸다. 교회는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여느 비즈니스 기업들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 교회의 경영방식과 기업의 경영방식이 높은 호환성을 갖게 되었다. 경영학의 기법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적용한 책들도 잘 팔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경영인’이라는 구호까지 유행하게 되었다. 어떤 교회는 교인을 만들지 말고 제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자훈련’을 선언했지만, 그것은 기업의 광고문구와 같은 것일 뿐, 물려드는 수 만의 교인들을 혼자서 감당하

려다가 ‘제자세우기’ 보다는 ‘교인경영’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오늘날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대형 교회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효율적 경영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수 만, 수 십만의 교인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그 만큼 높은 효율성을 갖춘 경영기술을 갖춘 사람과 조직이 요구된다. 반면에, 사랑은 그 기반에서 사라졌다. 대신에, ‘복지’가 사랑을 대체했다. 오늘날 소위 잘되는 대형교회들은 교인복지가 잘되는 교회이다. 가난한 교인들에게 쌀을 정기적으로 대주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준다. 병원비가 없으면, 대출로 지원해 준다. 싱글들을 위해서 맛 선을 주선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교인 중에 장례가 나면 교회가 모든 장례절차를 거의 무상으로 해결해 준다. 교회 밖에 대해서는 가난한 이들과 병자, 장애우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노숙자들에게 매일 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모든 복지활동을 훌륭한 경영기술에 의존하여 수행하고 있다. 세상에서는 개인이 개인을 돕는 일을 ‘낮은 차원의 휴머니즘’이라 부른다. 반면에 제도는 ‘높은 차원의 휴머니즘’이라 부른다. 사랑은 작은 도움을 주고도 생색을 내지만, 제도는 큰 도움을 주고도 생색을 내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휴머니즘이라는 것이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복지사회는, 개인이 개인을 개인적으로 전혀 도움 필요 없는 사회이다. 즉, 모든 지원이 제도를 통해 구현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복지사회인 것이다. ‘자원봉사’도 복지사회의 제도적인 프로그램이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상을 받거나 학교나 회사에서 성적 등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누구도 내

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도와주었다고 생색을 낼 근거가 없다.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상을 받거나, 제도적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복지사회에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않는다. 모두가 제도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윈윈게임’(win-win game)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기업 총수라고 해도, 복지제도를 추진하는 운영진이라고 해도 자랑할 수 없다. 만일, 자기가 잘 나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자랑하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그는 복지사회의 리더로는 자격이 없는 수준미달의 위인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복지사회의 제도들은 한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엘리트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오랜 시간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다듬고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한 두 사람에게 의해 휘둘리지도 않게 되는 것이다. 이상적인 복지사회에서는, 다만, 제도 자신만이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제도는 말이 없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랑을 하고 싶다면, 그는 자기 사회의 제도를 자랑해야 할 것이다. 복지사회를 이루어낸 역사와 그 제도들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복지사회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적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케인즈 같은 뛰어난 경제학자가 그런 꿈을 꾸었다. 그러나, 오늘날 복지사회는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아주 어렵게 되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연금수혜자는 많아지는데, 연금을 낼 노동연령층의 인구와 수입이 줄어들면서 혜택도 점점 줄고 있고, 수 십 년 안에 연금도 바닥이 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정재계의 리더들은 저마다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눈이 멀어서, 복지예산은 줄어들

고, 관련 제도들도 힘을 잃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의 리더들 역시 그 자리를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수혜자들이 받을 혜택들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스티글리츠라는 경제학자는 인간 자체가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복지사회나 그 제도들의 구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차라리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생존의 방식이 더 인간적이라는 선언과 함께 신자유주의 진영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몇몇 종교인사들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종교야말로,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이들은 이상적 복지사회와 종교적 천국 혹은 극락이 같은 사회일 것이라 본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들도 적지 않다. 이에 응하여, 교회의 기도나 주요한 종교적 프로그램들은 이기심과 탐욕을 제어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용도로 쓰이게 되었다. 오늘날 기독교 뿐만 아니라 불교 등 대부분의 종교계에서 유행하는 수행 프로그램들은 이기심과 탐욕을 제어하고, 적은 소유와 타인을 향한 봉사에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찾도록 지도하고 있다.

기도의 목적은 이기심과 탐욕을 제어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기도의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을 제어하는데 있다면, 기도는 종교가 이상적 복지사회를 구현하도록 하는데 매우 유용한 심리적 기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기심과 탐욕을 제어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욕구를 조절하는 일이, 곧 타인을 사랑하는 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기심과 탐욕을 제어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간관계는 ‘윈윈’(win-win)이다. 한 판



의 파이가 있는데, 8명이 나누어 먹으려 할 때에, 모두가 이기심과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면, 불평없이 공평하게 나누게 될 것이다. '이기심과 탐욕'의 제어는 합리적 세계에서 오히려 더 잘 통하는 태도이다. 또한, 민주주의적 이상을 가진 사회에서도 잘 통용되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이기심과 탐욕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기심과 탐욕을 제어하는 존재인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기심과 탐욕을 조절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사랑을 하는데 힘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사랑을 청원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나의 존재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얻으려는 결과이다.

이상적인 복지사회는 내가 누구를 힘써 사랑할 필요가 없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될 필요도 없다. 제도가 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교적 프로그램이 더해져서, 그 사회의 엘리트들이 이기심과 탐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복지사회의 가능성은 더 크게 열릴 것이고, 지속성도 담보될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복지사회와 예수님이 선언한 하나님 나라는 근본이 같지 않다. 이상적 복지사회는 합리성과 제도가 근본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근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복지사회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기심과 탐욕의 조절이고, 하나님 나라에게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사람이 날 때부터 타고난 심성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기의 근본, 자기의 뿌리를 통째로 바꾸지 않고서는 죽음과 저주를 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의 근본을 사랑으로 삼지 않는 세상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이상적 복지사회가 아니라 사회적 다위니즘, 즉 경쟁과 적자생존을 기초로 하는 피라미드적 계급사회이다. 종교가 '이상적 복지사회' 보다는 '피라미드적 계급사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이 지혜롭다는 입장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힌두교'이다. 힌두교는 카스트에 입각한 계급사회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사회라고 보고 있으며, '카르마의 법칙' 즉, '윤회의 법칙'을 제공함으로써, 어느 계급에 속한 사람이라도 불평불만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교이다. 물론, 종교적 믿음 혹은 신념을 가지고 이상적 복지사회의 꿈을 향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던진다고 해도 반대할 생각은 없다.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길이면, 이기심과 탐욕을 조절하며 이상적 복지사회를 향해 가는 길이건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보지도 않고 말만 하는 것보다는 틀려도 가보는 것이 훨씬 낫다.

성령은, 사랑을 자기의 근본으로 삼고 가는 길이 좋게 보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삶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을 자기의 근본으로 삼은 사람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좋아서 선택한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누렸던 '생명'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지옥에 떨어질지 아니면 영영 복구될 수 없는 소멸의 심판을 당하게 될지는 알 바가 아니다. 사랑하는 삶을 생명의 길로 선택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삶이 천국이고, 사랑하지 않는 삶이 지옥이다. 그러나, 내게 사랑하지 않는 삶이 지옥이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

으면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주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자신에게 해당되는 구호이면 틀린 말은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천국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는 지옥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는 살 맛이 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 때는 죽을 맛이라는 말이다. 이 점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교회 밖을 향한 선교의 선포가 될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경험적 고백이 되어야 할 내용이다.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고 해도 유익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 양보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된다. 성령과는 멀어지고, 육체와 가까워지게 된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심리적 자기 절제와 좋은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와 가까워지게 된다. 교회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다룰 일은 적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교회는 다룰 일이 생기더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사랑을 기반으로 사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사랑을 기반으로 사는 사람은 일은 세련되지 못하게 처리할 지는 모르나, 사랑에 기반하여 일할 것이고, 갈등이 생겨도 사랑으로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일하는 쪽이 교회이고, 교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비를 가리며 계속 다투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양보하여 평화를 만드는 쪽이 교회이다.

오늘날 미디어를 보면,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강연을 하고 책을 쓰면서 대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는 일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대중들은 종교계의 지도자들의 말에 감동을 받는 것일까? 종교와 세



상의 기반이 같아져서 그렇게 잘 통하는 것이다. 종교와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가 같아서 그렇게 감동하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사랑이라는 기반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세상과 소통하기 더욱 좋게 된 것이다. 복지사회의 꿈을 종교적 자기 절제의 기술이 보완하듯이, 세상 사람들의 허기진 욕구를 종교가 심리적 자기 통제의 기술로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사랑도 없고, 계다가 교양까지 없는 교회는 세상만도 못한 것이니 조롱과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사랑은 없는데, 교양이 많아서 교회가 존경을 받는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예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 더욱 악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크게 꾸짖은 까닭은, 그들이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즉,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교훈을 따라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여 가르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이방신과 같게 보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돈신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권력의 신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일을 두고, 그들을 구원한 신이라며 황금으로 소의 형상을 만들어 잔치를 벌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다.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는 복음서(눅23:12)의 선언은 하나님을 믿는 일과 이방신을 믿는 일이 동급이 되었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에게 의해 처형을 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자들에 의해 처형을 당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범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형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법은 사랑을 교회의 기반으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사랑을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 선택지들 중에 하나로 축소하는 것이다.

율법, 즉 토라를 놓고, 유대교의 랍비들은 ‘할라카’를 삶의 길로 제시하였다. 할라카는 613개의 계명이다. 반면에, 똑같은 토라를 두고, 예수님과 바울은 단 하나의 계명만을 삶의 길, 곧 ‘생명을 얻는 길’로 제시하였다. 그것이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이다. 예수님과 바울을 따르는 교회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가장 래디컬한 해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된 것은 ‘사랑’을 율법의 유일한 해석이자, 유일한 생명의 길로 삼지 않게 되면서부터이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사랑’을 유일한 성경해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예수님과 바울의 토라 해석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떤 교회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다. 그들의 정체성을 정하는 기준은 ‘사랑’이 아니라, ‘고기를 먹지 않는 일’인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이없게도 사랑과는 무관한 몇 가지 행동양식적 특징들이다. 예를 들면, 술을 안 마신다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해야 하고, 준법정신도 투철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다. 심지어는 반공을 믿음의 기준으로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다. 공산당이 싫다고 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공산당이 싫다고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교회가 일을 푹푹하게

처리하고,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일꾼들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은사’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재주가 곧 은사가 아니던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피아노치는 은사를 갖고 있으니,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피아노를 잘 못 치는 사람보다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더 선호되는 것이다.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 성가대를 맡기 보다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성가대를 맡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이다. 교회는 모든 일을 사랑을 기반으로 행한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일은 아무 유익도 없다. 아니, 오히려 해로운 일로 여긴다. 일을 할 때에는 교양이 필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서 교양이 아무리 뛰어나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다. 그것은 일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고, 교회에게는 해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성실, 포도가족

성실님 집에서 11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오랜만에 국내에 있는 보라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어서 좋았다,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생각하는 시간도 즐거웠고, 보라님 카스를 둘러보며 보라님의 가이드를 받으며 여행하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 기도를 할 때 모퉁이돌님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 모퉁이돌님을 더 좋아하겠다는 기도를 하고 일대일 만남을 했다, 시간을 내어 가족모임의 호스트로 가족들을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모퉁이돌님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모퉁이돌님이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기원을 했다, 바다님이 항상 가족 모임과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 감사 문자를 했고, 내가 좋아하는 체리를 선물로 드렸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비타민을 보충하고 건강하기를 빈다, 광야님을 좋아해서 시원하고 멋진 반팔 옷을 선물했다, 기분전환으로 휴대폰에 쓸 수 있는 이모티콘도 선물했다, 좋은님이 늘 집으로 찾아와 일대일 만남을 할 때 짧은 만남으로 사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공동체모임이 끝나고 저녁식사를 하며 사귀는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성실,

찬미님도 함께하여 더욱 즐거운 사귀는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왕이 아닌 낮은 곳에서 섬기는 ‘유대인의 왕’이 평화를 만들고 행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도 예수님과 강도의 내용이 다르듯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사랑하는 삶을 위해 모였고 그 삶을 따라가는데 기도와 실행을 같이 하지 않으면 겉돌게 되기에 늘 움직이도록 하겠다, 대기명당에게 아이스크림을 선물하겠다, 예수님은 금관대신 가시관을 쓴 왕이다, 그 왕은 백성들에게서 빼앗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 주는 왕이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살겠다, 교우들에게 감사문자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사람을 좋아하고 감사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느낀 것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사랑, 드림가족

소망님 집에서 10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뿌리님과 문자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였고 가정생활을 잘

꾸려가기를 기도하였다, 생명님을 찾아가 일요일 오후 저녁을 함께 하면서 사귀는 시간을 가졌다, 생명님이 자주 가는 카페도 가며 이 공간에서 생명님이 주로 산다고 생각하니 이대 앞이 더욱 정겨웠다, 호흡기도하며 앞으로도 생명님이 자존감 있게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깨끗하게 살기를 기도 하겠다,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진주님을 위해 맛집을 소개하고 맛을 직접 보게 해드리려고 함께 방문했다, 이번 주기에 진주님의 목표인 도시락 싸기와 관련된 메뉴를 고르려고 하였으나 더 좋은 메뉴인 융합정식이 있어서 같이 맛나게 식사를 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다, 씨앗님을 좋아해서 함께 복춘을 견고 아이쇼핑을 하며 즐거웠다,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좋은 시간을 가졌다, 사랑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자 식사를 대접하고 사랑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나도 다음에는 사랑님의 회사로 찾아가서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소망님과 일대일 만남과 인도자 그룹 협의를 마치고 영화 보고, 성찬 장보기를 하고 가족들을 만나 성찬준비를 함께 했다, 주일에는 주방에서 소망님과 호흡을 맞춰 식사준비를 했다, 토요일 이른 시간부터 일요일까지 몸

은 피곤했지만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누리서 좋았다, 드림님에게 격려문자와 과일바구니, 시험 잘 보고 잘 풀고 잘 붙으라고 휴지와 세제, 찹쌀떡, 홍삼드링크를 선물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재미있는 선물을 준비하면서 나도 기분이 좋았고 드림님도 이 선물을 받고 기분도 좋고 힘을 내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도 잘 보고 에너지가 더 생기면 좋겠다, 미리 내님을 위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을 골라 선물해 드렸다, 성찬준비를 하면서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접고 미리내님의 말을 더 경청하다 보니 함께 하는 성찬 준비가 힘들지 않았다, 항상 밝고 수줍은 모습의 어울님을 생각하며 간단한 문자를 보내고 체리를 티몬에서 구매해 택배로 보냈다, 늘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어울님이 드림가족이어서 즐겁고 든든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보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며 나를 합리화시키며 살아갈 때가 많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 늘 행복하다고 노래를 부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누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 사랑가족과 대가족 사귀는 즐겁게 하겠다, 머릿속

이상이 아닌 몸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 아직 현실에서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실천하고 살지는 못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좀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몸으로 만들어 가는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겠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수치이고, 어리석은 죽음으로 취급 당하고, 세상은 우리가 영광으로 여기는 것을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일로 여긴다.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의 삶을 자녀에게 권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세상의 잣대와 교회의 잣대는 완벽히 다른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세상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된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어떠한가 하는지 생각해봤다”라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소식, 화음가족

불꽃님 집에서 12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요한님이 요즘 하숙집에서 밥을 안 먹는 것을 생각해서 아침 식사 대용식을 준비했다. 요한님의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희은님에게 감사표현과 쿠폰을 선물했다. 이를 통해 희은님을 더 좋아할 수 있었다. 유랑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타코를 선물하기로 했는데, 빵을 선물하

는 것으로 바꿨다. 다음에 타코를 꼭 선물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유랑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즐거운님이 보내주는 말씀을 볼 때와 답문자를 보낼 때의 내 마음이 달라지고 더 기쁘게 살 수 있어 참 좋았다. 즐거운님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 기쁜 시간이었다. 요한님을 좋아하기 위해 계획했던 주일날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사일정 조정으로 약간의 여유 시간을 즐기는 요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다. 대학로 카페에서 화음님에게 케이크와 홍차를 대접하면서 인도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 기뻐했다. 신나님의 여행 소식에 기분이 좋아 가족 카톡방에서 응원했다. 신나님에게 어울리는 색깔의 볼펜을 발견해서 선물했다. 한가온님을 위해 마가복음읽기 245장을 복사해서 선물하였고 냉장고바지를 선물하였다. 일주일 동안 푸른님을 생각하고 윤기나는 모발을 위해 샴푸와 모발 영양제를 선물하였다. 제주도 여행하면서 불꽃님을 생각하여 한라봉을 사서 선물하고, 천연모기 퇴치제를 만들어 드리려고 계피와 에탄올을 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꾸는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었고 그들이 바라는 영광 또한 세상에서 원하는 권력과 같은 것이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영광이 세상의 것과 같은 것은 아닌지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 그

리고 ‘사랑하라’는 말씀만 생각하고 살아가겠다. 지금의 나는 어떤 나라와 왕을 원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했다. 내 옆의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원하겠다. 교회의 삶에 치중하도록 더욱 열심히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겠다. 나의 것을 내어 주면서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것이 나에게서 사랑의 실천이 되기를 기원한다. 예수님이 보여준 유대인의 왕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권력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기존의 권력도 해체되고 말 것이다. 화음가족 푸른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겠다. 불꽃님과 일대일 만남을 가지겠다. 성찬 대접 가족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 화음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겠다. 예수님의 나라는 권력을 창출할 수 없는 나라이고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나라임을 알겠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서포터즈에게 선물하겠다. 드림님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 101번 간식을 준비하는 교우들에게 감사문자를 하겠다. 인도자 훈련을 함께 하는 교우들을 칭찬 격려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맑은가족

맑은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맑은님과 가족수련회 답사를 위해 무의도를 갔다. 사랑하는 사람

과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라 좋았고, 가족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답사를 하니 행복했다. 사론님이 제 시간에 식사를 못할 때에 먹을 수 있도록 썩 인절미를 만들면서 기분이 좋았다. 일주일 동안 늘빛님을 위해 기도하고 옷 선물을 하였다. 사론님에게 인도자월샵 내용을 전달하고 간식을 준비하여 좋아하는 표현을 하며 격려하고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상이나 이념에는 권력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섬기는 왕들로 세워지는 나라를 향해 살자. 성령을 구하고 사랑하자. 다솜(이지원)의 독서록에 답글 달고 카톡인사를 하겠다. 한결(이기쁨)님, 찬미님, 마르다님에게 선물을 하겠다. 여름님에게 문자를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기쁨으로 준비한 대가족 만남 주간

성실가족 성실 신정아



주일에 예비인도자인 찬미님과 대가족 만남의 짝인 포도가족에게 복덩이가 되자는 목표에 맞춰 대가족 만남 주간 가족모임을 준비하는 인도자협의를 마치고, 다음 날인 월요일 오전에 성실가족과 포도가족의 단체카톡방을 만들었다. 우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으로 안부를 전하고 모임장소인 우리 집에 오는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올리니 반가운 가족들의 인사가 줄을 잇는다. 매일 그렇게 말씀으로 안부를 전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 기쁨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한 글을 올렸다.

우리 집에 방문할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홈페이지의 ‘요리방조리방’에서 눈 여겨 보았던 오이깻잎물김치와 지난 번에 담가서 성실가족의 호평을 받았던 오이소박이 재료를 구입했다. 오이소박이는 지난 번에 해봐서인지 진도가 잘 나갔다. 그런데 비주얼이 좋아 선택한 오이깻잎물김치는 오이를 절이고 칼집을 내서 끓는 물에 넣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채로 썬 양파와 빨간색, 노란색의 파프리카를 깻잎에 돌돌 말아 칼집을 낸 오이 속에 그 깻잎을 넣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공간이 딱딱해서 오이가 쪼개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킁킁대며 완성하고 나니 밤 12시 반, 그래도 짝 찬 두 개의 김치통을 바라보니 기분 좋았다.

드디어 가족모임을 하는 날, 미리 도움을 요청한 마리아, 아모님이 고맙게도 일찍 도착했다. 서둘러 만두속을 만들고, 마리아님과 아모님, 또 함께 온 오늘과 산들이가 만두를 빚는 사이에, 난 부지런히 양념한 다진 쇠고기를 두툽하게 올린 배추전을 부쳤다. 맛 담당을 자처한 보라님의 칭찬 가득한 리액션으로 힘이 절로 난다.

이제는 지난 주에 끓여서 냉동시킨 곰국을 육수로 한 떡만두국을 끓일 차례이다. 양이 많아서인지 들통 안에 있는 냉동 곰국은 좀처럼 끓어오르지 않는다. 속수무책인 와중에 나의 구세주 찬미님이 등장하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다. 들통만 바라보는 나와는 달리 찬미님은 세 개의 작은 냄비를 달라고 하더니 양을 나누어 나머지 모든 불 위에 올려 끓이기 시작하였다. 그도 모자랐는지 대접에 덜어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그 덕분에 내가 혼자 끓였을 때보다 약 20분이나 단축된 시간에 오늘의 메인요리인 떡만두국을 낼 수 있었다. 한 자리에 둘러앉아 주방에서 겪은 우여곡절을 이야기하며 하하호호 즐겁게 식사를 했다.

잘 준비한 해님의 진행으로 깔끔하게 정기모임을 끝내고, 가족별 협의시간을 마치자 가족들이 또 바빠졌다. 포도가족이 준비한 애프터 다과인 레몬주와 메론, 산딸기를 예쁘게 내고 짝과 함께 앉기 위함이

다.

우선 스토리와 캐릭터를 읽고 준비한 칭찬카드와 선물을 나누는 시간이다. 대가족 만남 짝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 서로 눈을 마주치며 환하게 웃는 모습, 허깅하는 모습 등을 카메라에 담는 각 가족의 사진담당들이 소리 없이 움직인다. 이번에는 상대방가족이 맞추는 캐릭터 퀴즈시간, 답이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세 번째는 빌립님의 호흡기도 시범시간, 먼저 우리들의 자세를 살펴본 후, 복식, 흉식, 흉곽호흡의 올바른 자세와 끝까지 다 내뻗고 다 들이마시는 1분 호흡의 진수를 보여주며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아준다. 마지막은 하나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이 정성껏 준비한 모임을 마치며 느낌을 나누는 시간, 밧그레 상기된 얼굴에 한 가득 미소를 머금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전하며 서로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예쁘고 좋은 가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린다.



예가 소식 & 공지

해 기도하는 일을 포함해 주십시오.

1 지금은 성령강림절기입니다. 형제를 먹이는 사랑으로 살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고, 누립니다.

2 데살로니가전서 읽기 모임은 주일 저녁 7시에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연경반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2주 정도씩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예가교회의 교인은 1년에 12주 참여를 권하고 있으니, 상반기나 하반기 중 정하여 참여 바랍니다. 또한, 연경반 강의는 매주 자료실에 업로드 하고 있으니, 참여하지 않는 교우들도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들을 수 있습니다.

3 STS(Searching The Scriptures)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STS 모임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초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초청 바랍니다.

4 신앙입문반(101) 36기가 진행 중입니다. 36기는 7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앙입문반을 인도하는 목사님과 섬기는 교우들과 초청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5 목요기도회는 목요일 밤 9시 30분에 친교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을 위해 기도하는 유일한 공식 기도집회이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목요일 밤 기도를 할 때에는 소식지의 '소식 및 공지'를 펴놓고, 교회의 활동들을 위

6 계좌로 헌금하신 교우들은 헌금 봉투에 이름, 보낸 날짜, 헌금명세를 적어 봉헌위원에게 내주십시오. 해외빈민구제 목적의 주일헌금도 매주 잊지 마시고 참여 바랍니다.

7.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생명, 초록님입니다. 예배위원은 공지가 나가면, 예배의 뜻을 새기며 기도와 형제를 좋아하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대접은 사랑가족이 대접합니다. 6월 봉헌위원은 늘빛님입니다.

날짜 성경읽기

월	사사기 4장 ~ 사사기 8장
화	사사기 9장 ~ 사사기 13장
수	사사기 14장 ~ 사사기 18장
목	사사기 19장 ~ 룧기 2장
금	룧기 3장 ~ 사무엘기상 3장
토	사무엘기상 4장 ~ 사무엘기상 9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준비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YEGA community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반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67

건축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71



Yega Community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새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